지난주 일 평균 468명 확진… 백신 이상반응 신고 1.7만건

서울시 코로나 현황

백신물량 18만3364회분 확보
2차 접종 마친 시민 109만명
"실내외서 마스크 반드시 착용"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주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전과 비교해 약 5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4~10일 관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281명으로, 일평균 468.7명이 새롭게 감염병에 걸렸다. 전주인 6월 27일~7월 3일 하루 평균 환자수인 298.9명보다 56.8%(169.8명)나 폭증한 것이다.

또 서울에서는 2주전과 비교해 지난주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와 사망자 수가 모두 늘어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6월 27일~7월 3일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사례는 전체 확진자의 41.5%에서 7월 4~10일 41.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수는 4명에서 7명으로 75%(3명) 급증했다.

최근 1주간 집단 발생 사례는 ▲직장 관련 136명 ▲카페·음식점 관련 72명 ▲기타 다중이용시설 관련 70명 ▲교육시설 관련 36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25명 ▲가족·지인모임 관련 15명 순으로 파악됐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최근 직장, 카페·음식점, 교육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종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실내외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자료에 의하면 12일 0시 기준 시에서는 약 960만명 거주 인구수 대비 30.2%(289만6204명)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시민은 109만6845명(11.4%)이다.

현재 시가 확보한 백신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2만9950회분, 화이자 15만2724회분, 얀센 120회분, 모더나 570회분 등 총 18만3364회분이다.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11일 신규는 10건이고, 누적은 1만7010건이었다. 이는 접종자의 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상반응 신고 중 98.3%가 근육통, 발열 같은 경증 사례였다고 시는 주장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55~59세 대상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된다"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중앙콜센터, 서울시 25개구별 콜센터로 전화예약, 의료기관 방문예약도 가능하니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7월 12~25일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적용된다. 서울시 코로나19 증가세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또한 접종했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거나 불안하면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으라"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TOPIS에서 도로침수 미리 확인하세요"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서울시 교통통제 예보서비스
내비게이션 앱 통한 안내 추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도로 교통통제를 시행하기 전 이를 미리 알려주는 '교통통제 예보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교통통제 예보서비스'는 집중호우로 하천수위가 일정 수준(경계 수위)에 도달했을 때 도로가 침수되는 것에 대비해 사전에 교통통제 예정 사항을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TOPIS)에서 안내하는 것이다.

집중호우 시 하천에 인접한 도로의 통제는 사전에 설정된 하천수위(경계→위험→침수)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경계수위에 도달하면 통제준비, 위험수위일 때는 통제시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상습침수구간인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의 경우 침수수위는 한강수위 기준 5.4m로, 한강수위가 3.9m(경계수위)에 이르면 교통통제를 준비하고 4.4m(위험수위)일 때는 교통을 통제한다.

이 서비스는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경계수위 도달 시 올림픽대로 본선과 주변 주요 접근로(노들로, 여의대방로, 여의동로, 영등포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통제 예정 사항을 안내한다. 내비게이션 앱을 통한 안내도 추진 중에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상습 침수구간인 ▲올림픽대로(여의상·하류IC) ▲강변북로(한강철교 하부) ▲동부간선도로(용비교~월계1교) 등 자동차전용도로 ▲잠수교에서 교통통제 예보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는 하천 인근 일반도로로 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내달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진행

선정된 30개 어린이집 맞춤 상담

'다함께 어린이집' 참여 시설에 배포한 안내서 표지. /서울시

서울시는 어린이집과 양육자,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가 돼 질 높은 돌봄 환경을 만드는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30개 어린이집에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보육주체인 어린이집과 양육자의 지속 자발적인 참여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공원·학교 같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보육의 품질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시는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총 109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약 3.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차에 걸친 심의 끝에 최종 30개소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8월부터 최종 선발된 3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에 들어간 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참여형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자 역량강화 ▲보육교사 활동지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등 4가지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시는 총 4개 추진과제 중 각 어린이집에 맞는 맞춤형 프로젝트를 설계해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향후 시는 참여 어린이집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사업을 평가한 뒤 내년에는 다함께 어린이집 2기를 확대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2021년 살기 좋은 도시 11위 선정

모노클, 전세계 도시 순위 공개

서울시는 글로벌 시사 월간지 '모노클'(Monocle)이 선정하는 '2021년 살기 좋은 도시'(2021 : Liveable Cities Index)에서 서울이 11위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노클은 2009년부터 매년 7·8월 '삶의 질' 특집호를 발간해 전 세계 도시 순위를 발표하는데, 서울은 올해 처음 순위권에 들었다.

모노클은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평가 항목 중 코로나19 상황에 맞지 않는 평가 항목을 제외했다"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삶의 질을 보존하면서 일상 복귀 후 회복할 준비가 된 도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모노클은 저렴하고 이용자 친화도가 높은 서울의 대중교통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홍대, 혜화, 이태원 등 일상 속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을 서울의 장점으로 꼽았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동선 추적을 통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전했다.

금번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코펜하겐, 2위는 취리히, 3위는 헬싱키, 4위는 스톡홀름, 5위는 도쿄, 9위는 타이페이, 12위는 밴쿠버, 14위는 베를린 등이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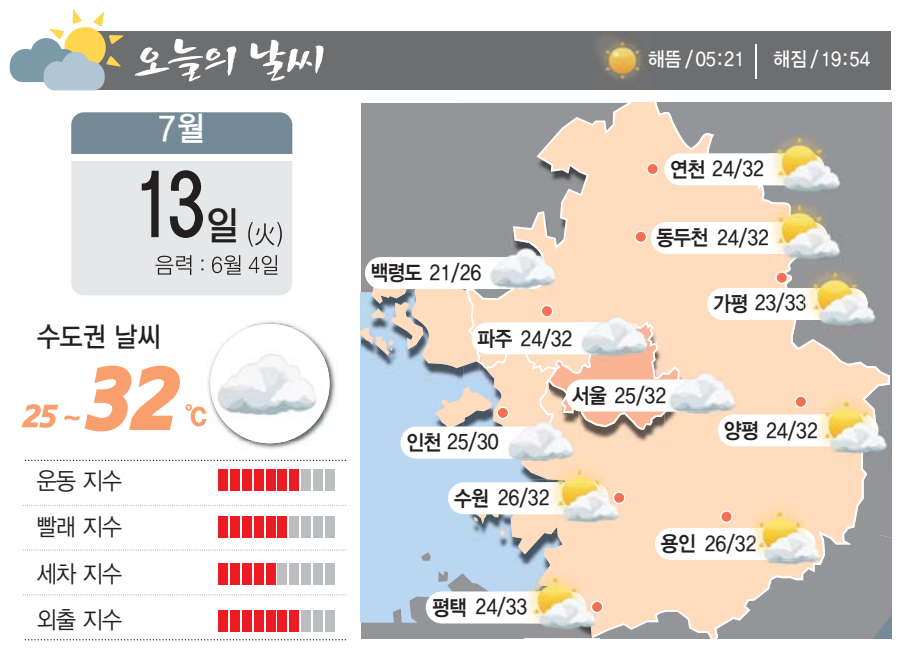
지방재정 집행 우수기관 선정

고양시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회복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최종 집행률 66.3%로 7,443억 원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율 55.1% 보다 11.2%(1,311억 원)를 초과 달성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日, 다음주 올림픽 개막 앞두고…오늘 도쿄에 긴급사태 선언 발효
▲러시아, 코로나 신규 확진자 3일 연속 2만5000명 ↑ /사진 뉴시스

▲APEC, 16일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 코로나 대책 협의
▲골드만삭스 "인플레이션에 주가·채권 동반 하락 우려"

▲비자거부된 中유학생 1100명,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남아공, 주마 전 대통령 수감 후 폭력 시위 이어져 /사진 뉴시스